

사회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심리운동 연구동향 분석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국내연구 중심으로-

유진호, 서연태
한신대학교 특수체육학과

Research trend analysis on psychomotricity based on Social Service -A Review of Research In Korea from 2013 to 2017 -

Jin-Ho Ryu, Youn-Tae Suh
Dept. Adapted of Physical Education, Han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와 함께 성장한 심리와 운동의 융합 적 차원의 심리운동 관련 연구를 다양하게 분석하여 향후 심리운동의 연구의 문제점을 찾고 다양한 연구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2013년부터 2017년 3월까지의 국내에서 연구 된 심리운동 연구를 논문 검색을 통하여 수집 분석하였다. 심리운동 관련 연구는 석사학위 30편, 박사학위 6편, 학술지 14편 총 50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50편의 연구는 유형별 분포, 대상별 분포, 연구설계 유형, 종속변인 유형, 중재 회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로 2013년 이후 연구사례가 하락세를 보이며 연구대상은 특정계층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연구 설계는 단일대상, 양적연구 순으로 종속변인은 운동발달, 사회성, 정서행동의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중재회기는 11~20회, 21~30회의 가장 많이 중재되었다. 연구결과에 변화는 사회성, 운동발달, 행동변화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융합 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심리운동의 연구는 대상의 범위확대, 연구방법 및 변인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활발한 후속 연구와 함께 향후 사회서비스의 기여와 함께 융합 적 방안을 제시하고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사회서비스, 심리운동, 연구경향, 융복합, 바우처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diverse research studies on psychomotricity as convergence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exercises and aims to identify challenges and provide solutions for more extensive future research. The study collected 50 papers published in Korea from 2013 to March 2017 through paper search systems and analyzed the distribution of the works by types and research subjects, and types of research design, types of dependent variables and the number of interventions involved. By research design, it was found that most number of papers were based on single-subject research, followed by quantitative research. Motor development appeared the most as a dependent variable, followed by sociality and emotional behavior. Most number of studies involved 21-30 times of interventions. The changes in the research results were analyzed in the order of sociality, motor development, and behavior change. Future psychomotricity studies need to expand study subjects and diversify research methods and variables, with active follow-up studies contributing to social service by providing comprehensive solutions.

Key Words : Social Service, Psychomotricity, Research trend, Convergence, Voucher

Received 1 July 2017, Revised 1 August 2017
Accepted 20 August 2017, Published 28 August 2017
Corresponding Author: Jin Ho-Ryu(Hanshin University)
Email: bkjh21@naver.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문화, 사회 환경으로 인하여 과도한 경쟁, 실업률 증가, 빈부격차 및 비인간화 현상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다[1].

야기 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은 복지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과거 사회복지와는 다른 복지와 고용창출을 고려한 포괄적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이 제시되며 2007년을 기점으로 사회서비스가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복지와 고용창출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사회서비스가 변화되고 있다[2,3].

이러한 변화 추세에 따른 시행 된 보건복지부의 장애 아동 바우처 사업의 시작과 함께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하는 심리운동은 바우처 사업에서 10대 제공 영역에 선정되어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과 발달을 지원하게 된다.

능력과 업적주의에 탈피하고자 하였던 심리운동의 역사는 독일과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제도 속에 편입되어 널리 서비스 되고 있으며 학문적 연구에서도 교육, 철학, 복지, 운동학에서 다양하게 연구 정착 되어 있다.

독일에서 전해지며 2005년 국내 도입 된 심리운동은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핵심 영역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학문으로 인정받아 국내 대학 및 대학원의 전공 과정 개설과 함께 민간 자격과정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3,4,5,6,7,8].

그러나 도입 후 학문 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심리운동의 정착되면서 도입 10년이 지나고 문제점들의 하나 둘 대두되고 있으며 첫 번째로 치료적 전문성과 효과의 객관성 부족으로 인하여 그 한계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제공영역에서도 재선정에 대한 논의와 학문적 연구의 미비한 실적은 사회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성장과 학문적 연구의 당위성 확립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부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현재 사회서비스로서의 심리운동의 제공인력 기준은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짧은 교육시간 이수로 취득하는 민간자격증은 앞서 언급한 심리운동의 문제점과 일치한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에 따른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대학수준의 심리운동 교과목 배치와 대학원에서 전공영역으로 활발히 연구하여 양질의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는 학계의 노

력은 간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학문적 당위성과 연구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심리운동 관련 선행연구는 꾸준히 발표되었으며 신체적 움직임이 갖는 특성과 사회성 및 정서적 순화가 요구되는 심리의 융합의 차원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9,10]. 그 가운데 심리운동 연구와 관련하여 심리운동 적 신체 프로그램을 적용 후 전반적인 운동발달 능력의 향상과 협응력 발달, 감각 조절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9,10,11,12,13,14,]. 또한 사회· 정서 심리· 발달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으며 문제행동 또는 가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선행 연구를 통하여 보고되고 있다[12,13,14,15].

아울러, 심리운동 연구는 여러 분야의 학문과의 융합적 시도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으며 직무만족, 자조기술의 대한 효과가 보고되었으며[16], 심리운동이 언어 발달 및 교육적 가치의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17].

하지만, 사회서비스와 그 발전을 같이해온 심리운동은 사회서비스 안에서의 역할은 매우 증가되고 있는 반면 심리운동의 학문적 연구는 2013년 이후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현장과 학문적 성장에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그 불균형은 앞서 언급한 학문적 당위성과 이론에 정립에 부재와 같은 문제점이 양상 되던 장애인의 재활과 발달을 지원함에 그 전문성에 대한 재논의가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앞서 제시한 심리운동이 당면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학문적 연구와 연계하여 규명해 나아감으로서 심리운동 사회서비스를 통한 장애 아동 및 장애아동 가족의 복지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도입 후 20주년을 앞두고 있으며 장애 아동의 재활과 발달 지원을 위한 심리운동의 학문적 당위성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선행연구의 동향을 분석 분석함으로써 심리운동의 이론적 정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 목적은 사회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심리운동의 학문적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사회서비스에서의 심리운동의 방향 설정과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심리운동

전인적 발달에 초점을 두고 능력과 업적주의에 탈피하여 인간 스스로의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지각하고 체험하는 신체활동에 정의를 두고 있는 심리운동은 1950년대 독일에서 키파드(Kiphard)와 휘네켄(Hühneken)에 의해 창안 되었다[18]. 심리운동은 목표는 인간의 신체와 심리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체로 간주하며, 대상자의 신체와 인성적 측면 발달과정들을 강조하며 타인과의 비교와 경쟁보다는 스스로의 긍정적 체험에 따른 긍정적 행위과정에 목표를 두고 있다. 심리운동은 신체 경험, 물질경험, 사회경험으로 구분하지만 현장 적용에서는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대상자중심의 자발성과 자율에 의한 결정을 통한 창의적이며 체험과 경험을 중요시하며 유희적인 신체적 활동으로 원칙을 강조한다. 심리운동의 대상은 노인, 유아,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리운동의 효과로는 움직임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감각 및 지각 능력의 발달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 그리고 사회성 함양을 심리운동의 효과로 정의 한다. 심리운동의 세부 영역은 인간의 신체적 경험을 통한 자아능력의 신장을 위한 신체경험과 물질과의 대면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물질경험과 나를 포함한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경험이 심리운동의 배경이론에 따른 분류이다[19].

2.2 사회서비스로서의 심리운동

심리운동은 사회서비스에서 10대 제공영역으로 장애 아동의 재활과 발달을 지원하며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21조의 의거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이며 장애 유형에 따라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및 중복 장애를 인정한다. 전국 소득수준 150% 이하의 기준을 마련하여 발달재활 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제공되고 있다. 언어재활, 청능재활, 음악재활, 미술재활, 행동재활, 심리 운동, 놀이재활, 운동재활, 재활심리재활, 감각재활의 10 가지 재활 영역을 선정 제공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발달재활 서비스를 매년 이용자 및 제공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249명으로 조사 되었으며 전국에 제공기관은 1534개소이며 이중 심리운동을 제공하는 기관

은 343개소로 조사 되었다[20].

심리운동사 취득 과정은 신체-물질-사회-적용 과정 200시간을 이수 한 후 과목별 검정을 통하여 취득하며 최초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수교육 60시간을 이수 하여야지만 그 자격을 유지 할 수 있으며 민간자격을 발급하는 기관은 2017년 기준 22개의 민간 자격 기관이 있다.

2.3 선행연구 고찰

2005년 최초 연구 보고되기 시작하여 심리운동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의 보고되고 있다.

심리운동은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하여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심리운동은 움직임에 기초한 만큼 운동성 관련에 대한 효과가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21,22]. 공격성향과 문제행동 감소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으며 정서 심리적 측면에서 또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23].

심리운동은 그 대상의 범위 또한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게 국한되지 않고 노인, 대학생, 형제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24].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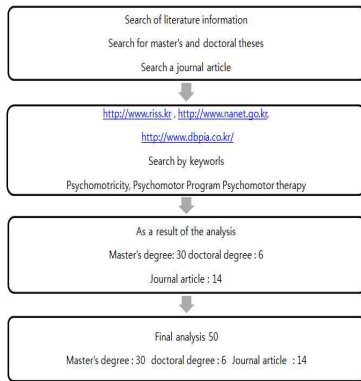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심리운동”, “심리운동 적”, “심리운동 프로그램”, “심리운동치료”를 검색하여 수집 된 석사, 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를 기초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논문 전문 검색 사이트인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누리미디어(DBpi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2013년부터 2017년 연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위연구와 학술지 연구의 제목과 저자가 동일한 연구와 연구 원문을 제공하지 않은 연구는 연구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3.2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심리운동전문가 교수 1인과 심리운동 전문가 박사과정 2인이 50편의 연구물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틀은 2017 강진숙[25], 2016 이채택[26], 2011 [27]민소연의 선행 연구의 틀을 전문가 2인과 함께 재수

정 하여 분석틀을 고안하여 사용하였다.
연구과정에 대한 진행절차는[Fig. 1] 과 같다.



[Fig. 1] Research process

3.3 자료 처리

수집 된 연구 논문 자료를 토대로 연구의 일반적인 특성, 변인의 특성, 실험설계와 중재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고, 별도의 분석표를 작성하여 분석 결과를 토대로 Microsoft office Excel 201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분석자간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 하였다.

$$\text{일치도} = \frac{\text{일치된 수}}{\text{일치된 수} + \text{불일치수}} \times$$

분석자간의 1차 신뢰도는 89.3 % 였으며, 분석자간의 합의 분석결과 2차 신뢰도는 91.8 % 로 나타났다.

4.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심리운동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7년의 총 50편의 연구를 분석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연구 유형의 분포

50편의 연구를 학위 유형과 학술지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1>에 따르면 석사학위연구가 30편

(60%)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술지가 14편(28%), 박사학위 연구가 6편(12%)의 순서대로 분석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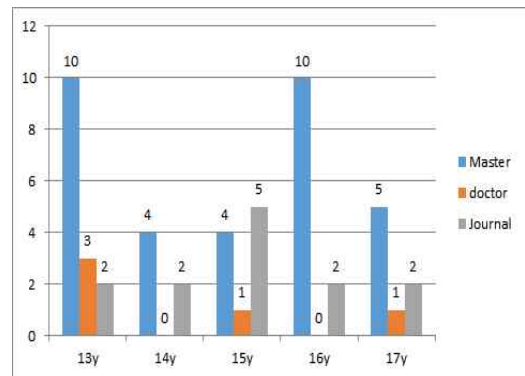
<Table 1> Research Type Distribution

Category	M	D	J	Total
Study	30 (60%)	6 (12%)	14 (28%)	50 (100%)

M: master, D: doctor, J: journal

4.1.1 분석연구의 연도별 유형 분포

[Fig. 2] 에 나타난 것과 같이 분석된 학위별 유형을 다시 연도별 유형으로 분석하였고 2103년의 석사,박사, 학술지의 총 연구가 15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14년에는 6편으로 가장 적은 숫자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y: year

[Fig. 2] Research Status by Year

4.2 연구 대상의 분포

50편의 심리운동의 연구의 연구대상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발달지체 13편(26%), 지적장애 11편(22%), 아동 7편(14%)으로 높은 비중의 연구 비율로 나타났으며 자폐성장에 5편(10%), ADHD 2편(4%) 등의 장애유형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였으며 심리운동사 3편(6%), 노인 1편(2%), 청소년 1편(2%), 어머니 각 1편(2%) 등의 다양한 대상의 연구가 진행 된 것을 <Table 2>에서 알 수 있다.

<Table 2> Distribution of research subjects

Object	Percentage
Developmental Delay	13(26%)
Mental Retardation	11(22%)
Children	7(14%)
Autism	5(10%)
Psychometrician	3(6%)
Developmental Disability	3(6%)
ADHD	2(4%)
Mothers	2(4%)
Teenager	1(2%)
Elderly Women	1(2%)
Cerebral Palsy	1(2%)
Chronic Schizophrenia	1(2%)
	50(100%)

4.3 연구 설계 유형의 분포

50편의 심리운동 연구 중 연구 설계에 따른 유형의 분포를 분석하였고<Table 3>에 나타나듯이 단일대상 연구 설계가 (46%)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실험에 따른 사전, 사후의 양적 데이터 비교연구가20(%)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조사연구 4(8%), 혼합연구가 3편(6%)의 순으로 분석 되었다.

<Table 3> Research design distribution

Study Design	Percentage
Single Subject	23(46%)
Pre and post	20(40%)
Mixed study	3(6%)
Research Study	4(8%)
	50(100%)

4.4 종속변인의 유형의 분포

2013년도 2017년 까지 연구 분석 된 심리운동의 종속변인을 분석하였고, 종속변인은 종속변인의 표적 특성을 고려하여 범주화 하였고 복수의 종속변인이 분석된 연구는 하나씩, 나누어 분석하였다.

<Table 4> 에 따르면 62편의 분석 중 운동발달 영역 15(24%)이 가장 많이 분석 되었으며 사회성 13(21%), 행동13(21%)은 같은 빈도를 보였으며 자아관련 9(15%), 뇌파 3(5%), 놀이관련 3(5%), 직무관련 3(5%), 기타 3(5%)는 모두 같은 빈도의 분석결과를 보였다.

<Table 4> Distribution of 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Percentage
Movement development	15(24%)
Sociability	13(21%)
Behavior	13(21%)
Self-Related	9(15%)
EEG Measurement	3(5%)
Play Related	3(5%)
Job Related	3(5%)
Others	3(5%)
	62(100%)

EEG ; Electroencephalogram

4.5 중재 회기 분포

중재 회기에 분석은 조사연구를 4편을 제외한 총 46편의 연구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1~20, 21~30 회기의 중재횟수가 19(41%)로 같은 빈도로 분석되었으며, 31회 이상도 7(16%)로 분석되었으며 10회기 미만은 (1%)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Table 5> Changes in Research Results

Intervention session	Percentage
1~10	1(2%)
11~20	19(41%)
21~30	19(41%)
31~40	7(16%)
	46(100%)

4.6 연구 결과 분포

연구 결과 분석 중 질적 연구와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연구를 제외 한 48편의 연구 결과 중 사회성 관련 연구는 18(38%), 운동발달 변화는 14(31%), 행동변화는 13(27%), 뇌파 변화는 2(4%), 기타 1(2%)로 분석 되었고 <Table 6>와 같다.

<Table 6> Intervention period distribution

Dependent variable	Percentage
Sociability	18(38%)
Movement development	14(31%)
Behavior	13(27%)
EEG Measurement	2(4%)
Others	1(2%)
	48(100%)

EEG ; Electroencephalogram

5. 논의

사회서비스와 함께 국내 도입 된 심리와 운동의 융합 학문인 심리운동은 2005년의 최초연구를 통하여 2017년에 이르러 총 100 여 편 이상의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심리운동 연구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의 일반적 유형, 연구대상의 분포, 연구설계 유형, 종속변인의 유형, 중재회기, 연구결과 유형의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분석연구의 유형별 분포에서 나타났듯이 석사학위 다음으로 학술지 박사학위의 빈도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심리운동은 관련 학과와 대학원 전공과정 개설되어지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며 심리운동의 국내 박사학위 연구자 부족으로 인하여 다른 학문 영역에 적은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이마저 감소 추세에 있어 향후 심리운동에 대한 전공영역 축소 후속 연구부재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것이라 생각 된다. 또한 심리운동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독일의 연구경향을 추가로 연구해봄으로써 국내 연구의 발전에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심리운동 관련 연구대상의 유형을 분석하면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질환, ADHD, 뇌성마비 등의 장애인 및 특수교육 대상자의 분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심리운동이 국내 사회보장 서비스의 확장 시기와 맞물려 동반 성장함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심리운동사 및 유아, 청소년, 부모 등의 대상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으며 다양한 대상에 연구 확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험 설계에 따른 심리운동 연구는 단일대상의 연구와 양적연구의 비슷한 빈도로 연구 되고 있음을 조사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특수교육 연구자와 특수체육 연구자의 융합 적 차원에 따른 인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심리운동의 특징 중 주관적 의미부여 및 관찰이라는 요소가 있듯이 연구 설계에 다양한 방법과 질적 연구 및 문헌연구에 대한 균형적인 연구 설계가 필요 할 것이다. 또한 특수체육학과 특수교육 관점에서의 연구뿐만이 아닌 다양한 교육적 가치 및 사회문제 해결에 관한 후속 연구는 심리운동의 학문적 가치를 확고한 할 수 있음을 제

언한다.

심리운동 연구에서 독립변인은 대부분 심리운동으로 정의 된다. 하지만, 과거 사회성 및 정서행동에 치우친 심리운동의 종속변인 요소는 운동발달, 언어능력, 직무스트레스, 자아능력 등으로 확대 연구되고 있음을 분석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창의성과 관련된 심리운동 연구 또한 후속 연구로 제언 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운동 연구는 변인에 따른 중재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으며, 연구 설계에 따른 중재와 기를 분석한 결과 총 11회기에서 30회기가 가장 심리운동 중재의 보편적 중재회기라는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는 심리운동의 다른 학문적 영역과 융합의 과정에 따른 중재회기의 분포라고 분석 할 수 있지만, 좀 더 표준화 된 중재회기를 구성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심리운동 중재가 연구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사회성, 운동발달, 행동변화의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심리운동의 사회성 중재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심리운동 연구의 양적 감소는 심리운동 초기 사회서비스 시행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장하였기 때문에 학문적 이론을 정립하지 못하고 연구의 주제가 제한 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심리운동에 대한 학문적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는 심리운동의 불균형 속에 발전을 거듭 하게 되었다. 민간자격협회의 연수과정은 학문적 검증에 한계가 있으며 이런 불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해결책은 교과목의 개설되어 있거나 전공과정의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자들의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루속히 다양한 연구와 개관적 효과를 검증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심리운동이 사회서비스의 한 영역인 발달재활서비스와 함께 성장하였던 것은 심리운동의 국내 정착과 저변확대에 그 초석이 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사회서비스와 심리운동의 관련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가 지

지하는 계층에 대한 연구는 간접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사회서비스와 심리운동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에 투영된 심리운동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구대상, 연구설계, 연구방법, 다양한 중재방법을 연구한다면 심리운동의 이론을 재정립하고 학문적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서비스 현장과 학문의 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융합적 조화를 통하여 사회적 이슈에 접근하고자 노력에 관한 연구[28,29,30]에서 해결책을 파악하고 그 해결과정을 심리운동 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운동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은 수의 국내연구만을 분석한 제한점과 연구결과에 도출된 통계적 의의를 통한 시사점을 분석하지 못함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며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서비스와 심리운동과의 상호 연관성에 대하여서는 이견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후속 연구자들이 사회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심리운동의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심리운동의 학문적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심리운동의 정착과 발전은 대학에서의 교과목 개설과 전공과정 개설을 통한 양질의 제공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여 전문 인력이 현장의 요구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심리운동이 사회적 요구에 부합한 학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Y, S, Won & J,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Health and Self-rated Oral Health on Convergence Stud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7 pp.239-248, 2015.
- [2] J, W, Han & H, S, Bae & H, T, Lim.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s through Analysis of Service Cases for Children and Older Citize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3 pp. 1-7, 2017.
- [3] J, M, Seo & N, H, Kim. "Recent Research Trends and Implications of the Social Service Supply Syste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4 pp. 55-68, 2016.
- [4] K, C, Jung. "A Model Development of Korean Curriculum for Psychomotrician", Graduate School of Hanshin University, 2013.
- [5] H, M, Kim. "The effect of psychomotor by the motional behavior disorder(ADHD) children on the improvement of Self-esteem, Depression or Hyperactivity in term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11 pp. 571-578, 2015.
- [6] Y, T, Suh. & K, C, Jeong. "Effect of a Psychomotor Program on the Motor Performance Abilities of Students with Autism". *Korean Journal of Exercise Rehabilitation*, Vol.7, No.1, pp. 69-78, 2011.
- [7] M, S, Kim. "Relationship between Job actual condition and Job stress of Psychomotor Specialist". Graduate School of Woosuk University. 2017.
- [8] J, G, Choi. Psychomotorik : "An Analysis on the research trends of domestic studies". Graduate School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2012.
- [9] J, H, Ryu. "effect of Psychomotor Physical Activity Program on the Athletic Abilitie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Graduate School of Hanshin University, 2011.
- [10] J, K, Jung. "The Effect of Proprioception oriented Sensory Integration Training on Gross Motor Function and Balance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Graduate School of Hanshin University, 2016.
- [11] D, G, Ko. "Effect Analysis of Psychomotricity and Aquatic Psychomotricity on the Motor Ability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order". Graduate School of hanshin University, 2016.
- [12] J, S, Kim. "Effect of Psychomotor Physical Activity Program on the Coordination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Graduate school of Hanshin University, 2011.
- [13] S, W, Kim. "Effect of Psychomotor Program on the Social Skill and Withdrawal Behavior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Graduate School of Hanshin University, 2017.
- [14] Y, S, Seo. "Effect of Psychomotor Program on the Problematic Behavior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Graduate School of Hanshin University, 2016.

- [15] H. J. Song. "The Effect of Psychomotor Activities Based on Physical Experiences on the Motor Skills and Adaptation of Intellectually Disabled Children".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33, No.1, pp. 199-216, 2017.
- [16] S. G. Kim. "The Effect of Psychomotor program on Self-help Skills for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Graduate School of Woosuk University. 2017.
- [17] M. H. Jo. "The Effect of Psychomotor Program on Expression Language Development of Infants with Development Delays". Graduate School of Woosuk University, 2015.
- [18] Zimmer, R. A point of view child-centered on psychomotorik. In *Psychomotorik on Korea*, pp. 5-35, 2005,
- [19] H. S. Kwon. "Effect of Psychomotor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Personality". Graduate School of Hanshin University, 2012.
- [20] J. W. Jin. "The Effect of Psychomotorik Program on the Development of Exercise Ability and Improvement of the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er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kook University. 2015.
- [21] M. S. Seo. Man Seok. "The Effect of Teakwondo and Psychomotricity program on Performance Exercise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Nazaren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Rehabilitation, 2015.
- [22] Y. J. Kim "Effect of Psychomotor Physical Activity Program on Body Perception and Problem Behavior of Autistic Students" Graduate School of Sport Rehabilitation Science, Hanshin University, 2011.
- [23] J. L. Ma. "The Effects of Psychomotor Program on the Self-Esteem of Children from Community Child Center". *Asia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Vol.12, No.3, pp. 187-20, 2011.
- [24] J. W. Kim. "The Effect of Psychomotor Siblings Program on Understanding and the Attitude of Non-disabled Sibings toward the Disability" Graduate School of Sports Sciences Special Physical Education Major. Yongin University, 2014.
- [25] J. S. Kang. "The Study on Methodology and Flow of Discourses of Community Media". *Communication & Information Journals*. Vol.81 No.1 pp. 9-39, 2017.
- [26] J. T. Lee. "An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s in Development and Implement of Parent Education Program : Focusing on Research in Recent 10 Year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6, No.1, 308-318, 2016.
- [27] Y. S. Min. "Reserch Trends in Intervention for a Child with At - risk ADHD" Graduate School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2012.
- [28] Y. S. Koh. "A Exploratory Study on the Digital Aging Policies as Solutions for a Aging Socie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11 pp.115-123, 2016.
- [29] J. H. Koo & S. R. Lee. " Telemedicine System for Korean Beef Cattle Converging Livestock Farm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12 pp 217-224, 2016.
- [30] M. S. Lee J. Y. Jang. " Program Develope and Class Design for Convergence ICT and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9 pp 9-18, 2016.

유진호(Ryu Jin Ho)



- 2004년 2월 : 한신대학교 특수체육학(이학사)
- 2011년 2월 : 특수체육학 석사(체육학 석사)
- 2014년 3월 : 한신대학교 특수체육학과 외래교수 ~ 현재
- 관심분야 : 심리운동, 재활체육
- E-Mail : bkjh21@naver.com

서연태(Suh Youn Tae)



- 1991년 4월 : Deutsche Sporthochschule Koln 석사
- 1996년 2월 : Deutsche Sporthochschule Koln 박사
- 1997년 3월 : 한신대학교 특수체육학과 교수 ~ 현재
- 관심분야 : 심리운동, 재활체육
- E-Mail : syt6657@naver.com